



#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February 2025 Issue | Vol. 10

###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피치는 필리핀 경제 성장 가속화를 전망 —page 1
- 1월 물가상승률 오늘 발표: 애널리스트 및 BSP 전망 요약 —page 2
- 경제단체들, 제안된 20만 페소 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 우려 —page 2-3
- 기업 등록 건수 6% 증가, 52,304건 — 증권거래위원회 (SEC) —page 3-4
- 미국-중국 무역 전쟁 속 필리핀, 기회 활용 촉구 — page 4-5
- CCIPI, 광산 재정 체제 법안 지지 표명 —page 6
- DTI 장관, 필리핀의 국제 파트너십 확대 발표 —page 7

### 피치는 필리핀 경제 성장 가속화를 전망

February 05 2025 | Keisha Ta-Asan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필리핀 경제가 향후 2년 동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통화 완화 정책, 강력한 인프라 지출, 그리고 투자 친화적인 개혁에 의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피치 레이팅스의 애널리스트 크리스야니스 크루스틴스(Krisjanis Krustins)는 보고서에서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5년 5.9%, 2026년 6.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피치는 2024년 6월에 ‘BBB’ 안정적(Stable) 신용등급을 유지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필리핀의 중기적인 강한 경제 성장과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라고 크루스틴스는 말했다.

그러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목표치인 6~8%를 밑돌며, 2026년 예상 성장률은 해당 목표 범위의 하단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장률은 ‘BBB’ 등급 국가들보다 높지만, 팬데믹 이전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주로 민간 자본 형성의 지속적인 약세 때문입니다.”라고 크루스틴스는 말했다.

필리핀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2%를 기록하며 이전 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In a report, Fitch Ratings analyst Krisjanis Krustins said the debt watcher expects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growth of the Philippines to hit 5.9 percent in 2025 and 6.2 percent in 2026.

이로 인해 2024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6%를 기록하며, 정부의 목표치인 6~6.5%를 밑돌았다.

크루스틴스는 또한 필리핀 정부의 재정적자가 2024년 국내총생산(GDP)의 5.7%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3년의 6.2%보다 낮아진 수치이며, 국가 부채는 GDP 대비 61.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는 강한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재정 적자 축소로 인해 2025년부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지표는 강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재정 건전화 속도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25년 5월에 예정된 중간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치는 필리핀의 정치적 상황이 선거를 앞두고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마르코스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루스틴스는 특히 전(前)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연관된 두 가족 간의 공개적인 대립이 투자 심리와 정책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필리핀은 미국의 경제 및 외교 정책 변화로 인한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필리핀 페소와 물가 상승에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성장 둔화와 중국 수출품의 시장 전환이 이러한 영향을 일부 상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크루스틴스는 분석했다.

그는 또한 “국내 소비에서 해외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필리핀은 미국의 이민 정책 변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송금원은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어 어느 정도 완충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는 필리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여전히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보다 강한 거버넌스, 빠른 부채 축소, 그리고 현재 전망치를 뛰어넘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치는 밝혔다.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2/05/2419192/fitch-expects-philippines-growth-pick-up>

**1월 물가상승률 오늘 발표: 애널리스트 및 BSP 전망 요약**

February 05, 2025 | Jimmy Calapati | Malaya Business Insight

**January Inflation Forecast**

Source	January 2025 (Forecast)	December 2024 (Actual)	January 2024 (Actual)
Bangko Sentral ng Pilipinas (range: 2.5 - 3.3 %)	2.9	2.9	2.8
Michael Ricafort, RCBC	2.6		
Emilio Neri, BPI	3.0		
Jonathan Ravelas, BDO	2.5		
Aris Dacanay, HSBC	2.7		
Ruben Asuncion, Unionbank	2.8		
Sarah Tan, Moody's Analytics	2.7		

필리핀 통계청(PSA)은 2025년 1월 소비자 물가에 대한 보고서를 2월 5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 일간 *Malaya Business Insight* (MBI)와 인터뷰한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1월의 물가상승률이 2024년 1월 2.8%와 2024년 12월 2.9%에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I는 1월 예상치를 분석한 표를 아래에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이 필리핀 중앙은행인 방코 센트럴 은 필리핀(BSP)의 목표 또는 추정 범위와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또한, 2024년 12월과 2024년 1월의 실제 물가상승률에 대한 비교 수치도 제공됩니다.

2024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3.2%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 정부의 목표 범위인 2~4% 내에서 중간값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jan-inflation-rate-out-today-a-summary-of-estimates-by-analysts-and-bsp/>

**경제단체들, 제안된 20만 페소 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 우려**

February 05, 2025 | Dexter Barro II | Manila Bulletin

여러 경제 단체들은 제안된 하루 200페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필리핀 경제와 특히 중소기업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리잘 4구의 피델 노그랄레스 하원의원에게 제출된 입장에서, 이들 단체는 제안된 인상이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는 "실현 불가능하고 유익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그랄레스 의원은 최근 민간 부문 노동자들에게 하루 200페소의 임금 인상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모든 업종에 일괄적인 방안을 적용하기보다는, 우리는 lawmakers(입법자)들이 빈곤과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보다 목표 지향적인 조치를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단체들은 말했습니다.

필리핀 고용주 연합(ECOP),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필리핀 수출업체 연합(PHILEXPORT)과 8개의 주요 경제 단체들은 이 법안이 중소기업(MSMEs) 부문에 미칠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하원 패널이 이 법안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겪게 될 부담을 경고하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마진이 적고 재정적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상무부(DTI)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필리핀 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합니다.

"하루 200페소의 일괄적인 임금 인상을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기업들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줄 것입니다."라고 입장에서 밝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 단체는 광범위한 사업체 폐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Cont. page 3]

## 경제단체들, 제안된 20만 페소 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 우려

[Cont. from page 2]

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많은 소기업들이 해고를 진행하거나 심지어 영구적인 폐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쟁하거나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강제로 진행해야 하며, 이는 전반적인 고용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으며, 이는 노동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소기업(MSMEs)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업들도 노동 비용 인상을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비즈니스 단체들은 말했습니다.

이들은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이 투자 지연, 고용 감소, 심지어 일자리 삭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입장서에 따르면, 제안된 임금 인상이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필요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 전체 노동력의 약 70%가 비정규 경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종 이들 근로자들이 정식 계약, 복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현재 형태의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며, 이는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입장서에서 밝혔습니다.

### 파급 효과

비즈니스 단체들은 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도 경고하며, 기업들이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법안이 보호하려는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단체들은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전체 경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입장서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단체들은 임금 왜곡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는 유사한 기술과 책임을 가진 근로자들 간에 임금 차이가 발생할 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임금 구조에 혼란이 생기고, 불공정한 임금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임금 협상에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보상 구조를 재조정해야 하는 장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입장서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단체들은 임금 인상 추진에 있어 협의적인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조정된 전략이 근로자의 필요와 고용주가 직면한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근로자의 하루 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보호하고, 사업 성장을 촉진하며, 필리핀 경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5/2/5/200-wage-hike-feared-for-harmful-effects-on-business-economy](https://mb.com.ph/2025/2/5/200-wage-hike-feared-for-harmful-effects-on-business-economy)

## 기업 등록 건수 6% 증가, 52,304건 — 증권거래위원회 (SEC)

February 05, 2025 | Revin Mikhael D. Ochave | BusinessWorld

2024년 신규 기업 등록 건수가 52,304건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 49,506건에서 6%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간소화된 신청 절차 덕분이라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밝혔습니다.

주식회사는 신규 등록된 기업 중 75%인 39,146건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비상장회사는 21%인 10,782건을 기록했다고 SEC는 화요일 이메일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5%인 2,376건은 합자회사를 차지했습니다. 1인 기업의 신규 등록은 27% 증가해, 2024년에는 8,640건으로 전년 6,794건에서 늘어났습니다.

SEC는 2024년 말 기준으로 527,710개의 활성 등록 기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Cont. page 4]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 기업 등록 건수 6% 증가, 52,304건 — 증권거래위원회 (SEC)

[Cont. from page 3]

"디지털 전환은 우리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SEC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기업 등록 건수가 50,000건을 초과한 것은 우리가 기업들이 SEC에 등록하여 운영을 합법화하도록 장려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라고 SEC 의장 Emilio B. Aquino는 말했습니다.

지역별로 SEC는 전체 등록 기업의 약 40%인 20,231개가 수도권(메트로 마닐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칼라바르손(카비떼, 라구나, 바탕가스, 리잘, 케손주)가 16%인 8,226건, 중앙루손이 12%인 6,14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부문이 신규 등록 기업 중 86%인 44,872건을 차지했으며, 그 중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부문에서 12,479건의 신규 등록이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디지털 전환 성공을 바탕으로 공공에 더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리핀에서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데 기여할 다른 전략을 모색할 것입니다."라고 Aquino 의장은 말했습니다.

SEC는 2021년에 시작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통해 등록 절차를 34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기업 등록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 세 번째 단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는 서명 및 등록 요구 사항의 종이 제출을 없애는 플랫폼의 생성이 포함되었습니다.

디지털화 전략에는 외국인 투자법과 외국 다국적 기업의 등록을 위한 부서의 설치, 기업의 수정 신청 처리를 위한 온라인 포털 구축, 세금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규제 및 집행 기관과의 데이터 공유가 포함되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corporate/2025/02/05/651127/corporate-registrations-rise-6-to-52304-sec/](https://www.bworldonline.com/corporate/2025/02/05/651127/corporate-registrations-rise-6-to-52304-sec/)

## 미국-중국 무역 전쟁 속 필리핀, 기회 활용 촉구

February 05,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and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ICTSI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 필리핀은 수출 지향적인 기업들에게 대체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화요일, 중국산 상품에 대해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30일간 연기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빠르게 보복 조치를 취하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는 15%, 원유, 농기계 및 일부 차량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는 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중국 정부는 전했습니다. (관련 기사 읽기: "중국, 미국 상품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에 맞서 보복 관세 부과")

전 무역부 장관 라몬 M. 로페즈는 세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 수입업자들에게 이들 국가의 상품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며, 이는 필리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을 더 비싸게 만들고, 이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업체를 찾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그는 Viber 메시지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에게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 경쟁력 있게 공급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대학교에서 정치 경제학을 가르치는 조지 N. 만자노 교수는 필리핀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피하려는" 다른 국가를 수출 플랫폼으로 찾고 있는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원래 수출될 예정이었던 수출 지향적인 많은 투자들이 대체 장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은 노동력 공급을 통해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월요일 비즈니스월드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는 "여러 상품의 기존 공급망을 방해하고 세계 무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만자노 교수는 경고했습니다.

[Cont. page 5]

## 미국-중국 무역 전쟁 속 필리핀, 기회 활용 촉구

[Cont. from page 4]

한편, GlobalSource Partners의 국가 분석가 디와 C. 귀니군도는 필리핀은 수요 이동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수출이 다른 영향을 받은 국가들과 유사하다면, 물론 필리핀산 제품에 대한 수요 이동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물론 실증적인 문제입니다.”라고 그는 Viber 메시지를 통해 비즈니스월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귀니군도 씨는 상호 연결된 외부 무역과 가치 사슬로 인해 높은 관세가 결국 필리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경제로의 전체 수출에 더 높은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시장 축소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테네오 정부대학의 필립 아놀드 P. 투아뇨 교수는 미국의 관세가 자동차 생산, 자동차 부품, 석유 및 석유 제품, 컴퓨터 및 모바일 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필리핀은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부품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며, 중국에서 벗어나 더 낮은 관세를 활용하려는 공급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투아뇨 교수는 비즈니스월드와의 이메일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산 컴퓨터와 폰에 대한 잠재적인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전자 부품의 대체 공급자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는 이 부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투아뇨 교수는 또한 필리핀은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한국의 공급업체들을 초청하여 필리핀 내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 Comtrade의 자료를 인용한 투아뇨 교수는 2023년 필리핀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 제품이 자동차, 원유, 전화기, 컴퓨터 및 자동차 부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필리핀은 글로벌 공급에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인프라와 물류 효율성을 개선하고, 중기 산업의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숙련도를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테네오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레오나르도 A. 란조나는 이 관세가 필리핀의 무역 정책을 재설정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의 무역 정책을 재설정하고, 비교 우위를 고려하여 진정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또는 차별화하여 우리의 틈새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볼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그리고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의 기회와 도전을 집중하고 통합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로페즈 전 장관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인플레이션 환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필리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높은 관세 보호는 영향을 받은 제품들의 국내 가격에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규모와 정도에 따라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압력을 높이고, 많은 나라들의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쳐 이들 국가들의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의 2024년 무역 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여 542억 1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필리핀 통계청의 예비 자료에 따르면 밝혔습니다.

2024년 필리핀에서 제조된 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여전히 미국으로, 필리핀의 수출액은 121억 2천만 달러로 전체의 16.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세페리노 S. 로돌포 무역 차관은 정부가 미-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리핀의 양자 FTA에 대한 관심을 환영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2/05/651172/philippines-urged-to-take-advantage-of-opportunities-amid-us-china-trade-war/>

## CCPI, 광산 재정 체제 법안 지지 표명

February 05, 2025 | Dexter Barro II | Manila Bulletin



필리핀상공회의소(CCPI)는 국가 경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필리핀의 광업 세제 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상원 법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상원 법안(SB) 제2826호, 또는 “대형 금속 광업을 위한 강화된 세제 법”은 1%에서 10%까지의 5단계 풍부 이익세 시스템과 1%에서 5%까지의 마진 기반 로열티를 제안합니다.

이 법안은 행정-입법 개발 자문 위원회(LEDAC)의 우선 법안 중 하나로, 2월 3일 월요일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CCPI는 성명에서 SB 제2826호가 조직의 경제 나침반 기동 5(ECOMP-P5) 지지 활동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COMP-P5는 필리핀의 변명한 과거를 재건하고 미래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CCPI의 핵심 지지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제안된 법안은 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을 강화하려는 비전에 부합합니다.

“CCPI는 올바른 정책과 전략적 투자로 광업 분야가 경제 변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이 단체는 말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 기관인 CCPI는 이 법안이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강력한 광업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및 반도체와 같은 광물 기반 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더 높은 위치로 나아가며 수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SB No. 2826에는 국내에서 추출한 원자재의 수출을 금지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법에 서명된 후 5년 후에 시행됩니다.

CCPI는 원자재가 수출될 경우 지역 산업이 잠재적인 가치를 잃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압력이 있을 경우 기업들은 결국 고비용의 완제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상황은 노동자들이 “낮은 기술 수준의 일에 갇혀 돌을 다루는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의 추출과 활용이 주로 지역 사회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확고히 믿습니다. 따라서 이는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장기적인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합니다.”라고 CCPI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원자재의 수출이 여전히 지역 제조업의 필요를 고려하여 지침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CPI는 “전략적 파트너 및 동맹국”에 대한 수출 우선권을 기존의 국제적 약속에 따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 No. 2826가 월요일에 통과된 후, CCPI는 즉시 법안을 하원과 통합하여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이 그룹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접근법과 더 강한 공공-민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안의 조항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CCPI는 또한 제안된 조치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광업 부문에서 주요 도전 과제를 진지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사항으로는 인프라 개선, 에너지 비용 절감, 숙련된 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추가했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5/2/5/ccpi-backs-mining-fiscal-regime-bill](https://mb.com.ph/2025/2/5/ccpi-backs-mining-fiscal-regime-bill)

**DTI 장관, 필리핀의 국제 파트너십 확대 발표**

February 05, 2025 | Kris Crismundo | Philippine News Agency



**INT'L PARTNERSHIPS.** Trade Secretary Cristina Roque delivers her speech at the Parliamentary Intelligence-Security Forum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n Feb. 4, 2025. Also in the photo is Parliamentary Intelligence-Security Forum chairperson and former US Congressman Robert Pittenger. (Photo courtesy of DTI)

마닐라 - 필리핀은 무역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치하며 수출 수익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발표된 성명에서,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크리스티나 로케 장관이 화요일 의회 정보보안 포럼에서 한 연설에서 필리핀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케 장관은 "인도-태평양은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 세계 GDP의 60%와 세계 상품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필리핀은 전략적인 위치와 역동적인 경제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경제 지형을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변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필리핀이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관계(RCEP),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번영을 위한

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칠레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IPEF와 같은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의 참여는 미국 및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의 양자 무역 및 전반적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는 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기후 완화 및 회복력, 좋은 거버넌스, 공급망, 중요한 광물 등을 포함한 우선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지원합니다,"라고 DTI 장관은 말했습니다.

또한, 로케 장관은 미-필리핀 파트너십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제출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워싱턴 D.C.와 마닐라 간의 중요한 광물, 광업, 화석 연료 및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새로워진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시장 접근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노동 권리, 환경 보호 및 사회적 포용성의 최고 기준을 보장하는 차세대 무역 협정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43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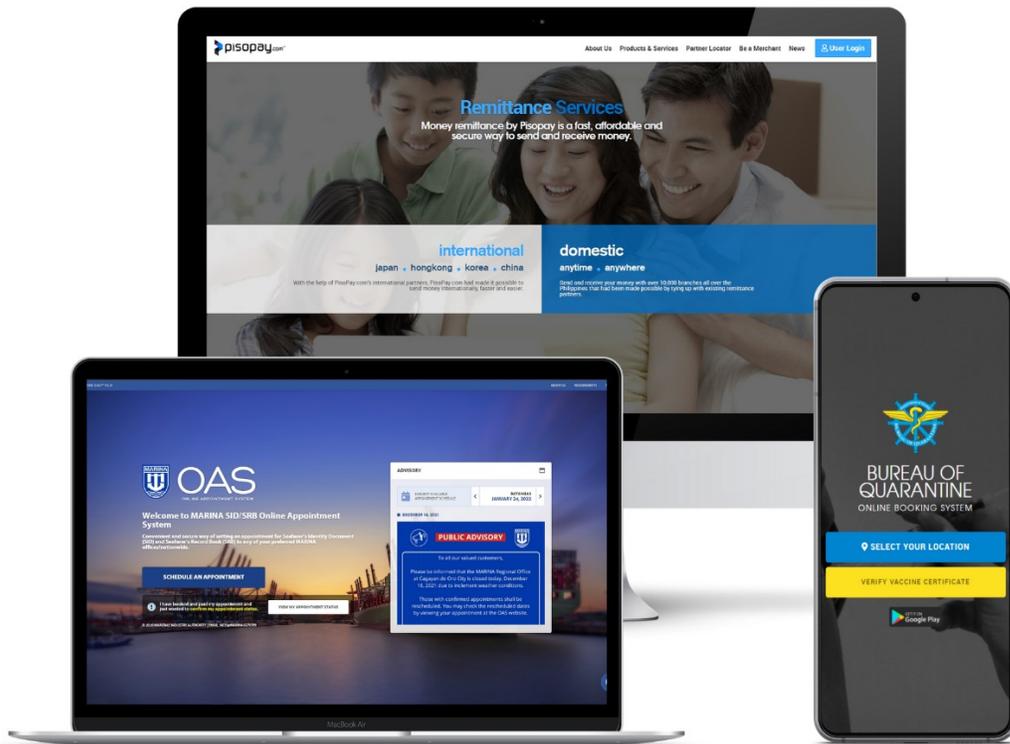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